

제주체육 이끌 민선 첫 수장에 부평국씨

어제 도체육회장 선거 결과 14표 차로 당선 확정 제주시체육회장 김중호·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민선 체육회장 시대 개막에 체육인 기대·우려 교차



김중호 제주시체육회장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관에서 치러진 제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선 김중호 전 제주시생활체육회장이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총 218표 중 126표를 얻어, 92표를 받은 흥국대 전 제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34표 차이로 체육회장 자리에 올랐다.

서귀포시체육회장은 투표 없이 결정됐다. 서귀포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태문 전 서귀포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출된 제주지역 체육회장들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3년으로, 2023년 2월 정기총회 전일까지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맡던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선출되면서 '민선 체육회장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날 도체육회장 선거 제주시 투표소에서



15일 치러진 초대 민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부평국 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사진 가운데)이 당선됐다. 이날 당선증을 교부받은 부평국 당선인이 제주체육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만난 체육인들은 민간인 체육 수장에 대한 바람을 꺼내놓았다.

김병관 제주도탁구협회 감사는 "체육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달라"고 했고, 강만순 제주도유도협회장은 "가맹경기단체의 필요 요구를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는 등 경직된 체육회 조직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윤중보 제주시불림협회장은 "후보마다 공약은 거창한데,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보인다"며 "말뿐인 민선 체육회장이 되지 않도록, 제주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민선으로 치러진 첫 선거였지만 지난 6일부터 10일 간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공약 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지은기자 jieun@halla.com

도내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강화되나

유아교육·사립학교법 등 '유치원 3법' 13일 국회 통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15일 이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 도내 사립유치원 20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유치원 3곳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준 없이 원장, 사무직원의 보수를 과다 책정해 지급하거나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등을 위반하고도 이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처벌을 피한 셈이다.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 문

턱을 넘으면서 이같은 사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유치원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이 금지되고 모든 유치원의 '교육행·재정 통합 시스템'(에듀파인) 사용 등이 의무화됐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공정·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유치원 3법을 기반으로 도내 사립유치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유치원은 123곳이며, 이중 22곳이 사립이고 나머지는 공립이다. 유치원 학급 수는 287개(공립 172·사립 115)다. 김지은기자

"성평등 의식 높아졌지만 고정관념 여전"

2019년 제주도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인식확산에 나서면서 도민과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별고정관념은 여전히 높아 앞으로 다양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이뤄진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제주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제주자치도 양성평등기금 기획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다. 도민 606명과 공무원 452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도민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2016년보다 높았으나 경제자립, 자녀돌봄 및 직업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은 오히려 강화된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았다. 도민은 남성성, 제사예절, 제사음식, 공무원은 남성성, 자녀돌봄, 경제자립의 성역할에 대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도민은 연령이 낮을수록 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았지만 20대에서 가장 큰 성별격차를 보였다. 반면 공무원 여성은 직급이 높을수록, 남성은 직급이 낮을수록 높은 성평등 의식 수준을 보였다. 특히 영역별 성평등 실태를 보면 성별고정관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돌봄, 가사분담에서도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4점 만점에 2.29점(공무원 2.5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1순위)와 대중매체의 성차별 비난(2순위)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성평등정책 중요도는 도민 공무원 모두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영역의 성평등 정책을 가장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연구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제주 성평등 의식 제고를 비롯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성평등 정책 체계 제고, 성인지통계 체계화 등 5개 영역 정책 추진방향과 22개 세부 추진방향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제주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첫 실태조사로 의미가 크다"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상훈기자

트럭끼리 충돌 1명 사망

15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도 애월읍 광령보건진료소 인근 도로에서 A(56)씨가 몰던 1t 트럭이 마주오는 1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김현석기자

공사현장 체불행위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대금 체불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및 행정사에서 발주된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 등이 설 명절 전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별 자체 점검도 이뤄진다. 오은지기자



한라산 만설(滿雪) 제주지역 중산간에 많은 눈이 내린 15일, 모처럼만에 설국으로 변신한 한라산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제공-남대야열대산림연구소

2023년까지 학교 내진보강 조기 마무리

도교육청, 교육 희망정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진 등에 대비해 2023년까지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은 이같은 내

용이 담긴 '2020년 제주교육 희망정책'을 15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올해 60억 원을 들여 도내 학교 15곳, 건물 26동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와 보강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까지 학교 183곳, 건물 534동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건물 외벽에 다양한 색깔을 입히는 사업도 이어간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창의성과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 학교 31곳에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 35곳에서 시행한다. 김지은기자

상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